

KATY PERRY

전세계가 사랑하는 기록의 여인



케이티 페리 (1984.10.25.) / Katheryn Elizabeth Hudson / 싱어송라이터 / 2001년 데뷔~ 현재까지 활동중

케이티 페리는 개신교 목사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매우 종교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종교와 관련 없는 음악은 잘 듣지 못했다. 얼마나 종교적이었느냐면 렉이 루시퍼를 뜻한다고 해서 렉키참스 라는 시리얼을 못 먹었으며 페리의 언니는 10대 중반 때도 마이클 잭슨이 누군지 몰랐다. 또 당시 인기 만화였던 개구쟁이 스머프를 시청하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케이티는 훗날 개구쟁이 스머프 더빙에 참여한다.

케이티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본인 혼자 집에 남고 가족이 다 외출했을 때 노래를 배우고 있는 언니의 카세트틀 몰래 훔쳐 들으며 노래를 연습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는 친구네 집에서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퀸의 Killer Queen이었다. 케이티는 이 노래가 음악적 활동을 시작하는 데 영감을 준 노래라고 했으며,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예로 들어 그가 작사하는 데 있어 비꼬는 듯한 방식과 "난 신경 안 써"라는 듯한 태도의 결합은 자신의 음악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후 케이티의 부모님은 케이티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에게 기타를 사주거나 보컬 트레이닝이나 댄스 레슨 같은 것을 시켜줬고 그녀는 15살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의 길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된다. 특히 스티브 토마스 와 제니퍼 랩의 눈에 띄어 테네시로 이동하여 음악공부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 고등학교 자퇴서를 내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7살, 2001년에는 본명인 케이티 허드슨(Katy Hudson)으로 CCM 앨범을 냈으나 실패하게 된다. 1집의 실패 이후 케이티는 CCM 가수가 아닌 팝스타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다시 캘리포니아 LA로 돌아온다. 그리고 미국 배우 케이티 허드슨(Kate Hudson)과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혼전 성인 Perry를 따 케이티 페리(Katy perry)라는 예명을 지었다.

당시 케이티는 프레디 머큐리 외에도 엘라니스 모리셋에 푹 빠져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LA에 오자마자 엘라니스 모리셋의 3집 앨범 프로듀서였던 글렌 발라드의 스튜디오에 무작정 들어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다. 글렌 발라드는 그 당돌한 모습을 보고 그녀를 제자를 받아들이고 그녀와 계약해 줄 레코드 레이블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아일랜드 레코드였고, 어른의 사정으로 레이블에서 잘리고 앨범 발매가 무산되었다. 그 후 두 번째로 계약을 한 곳이 콜롬비아 레코드였는데 이때 콜롬비아 레코드의 관계자들은 케이티의 앨범이나 컨셉을 당시 잘 나가고 있는 에이브릴 라빈 스타일로 정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나는 케이티 페리지, 제2의 누군가가 아니다."며 에이브릴 라빈 스타일로 가는 걸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그녀와 관계자들과의 의견 충돌로 케이티는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캐피탈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캐피탈 레코드에서는 전 회사들과 다르게 그녀의 음악과 컨셉을 존중하고 그녀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앨범의 프로듀싱을 닥터 루크와 맥스 마틴에게 맡기는 등 그녀에게 최고의 작업진을 섭외해주며 엄청난 푸쉬와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다.

2008년 동성애를 주제로 삼아 논란을 일으킨 싱글 <I Kissed A Girl>과 다음 싱글 <Hot n Cold>, 그리고 페리의 두 번째 정규 앨범 《One of the Boys》를 발매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세 번째 정규 앨범 《Teenage Dream》을 발매해 처음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앨범의 싱글인 <California Gurls>, <Teenage Dream>, <Firework>, <E.T.>, <Last Friday Night (T.G.I.F.)>까지 모두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라 마이클 잭슨의 《Bad》 이후 20여 년 만에 한 앨범에서 다섯 장의 싱글이 연속으로 1위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 2012년 3월에는 리패키지 앨범 《Teenage Dream: The Complete Confection》을 발매해 싱글 <Part of Me>는 1위, <Wide Awake>는 2위에 올려놓았다. 2013년에는 네 번째 정규 앨범 《Prism》을 발매했고, 싱글 <Roar>와 <Dark Horse>의 뮤직비디오 모두 10억 건의 조회수를 넘기면서 10억 이상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두 개 가진 최초의 음악가가 되었다. (<Dark Horse>는 조회수를 21억회를 기록하고 있다.)

그녀의 곡은 주로 성과 사랑 등의 주제를 다루며 모든 곡을 마치 자서전처럼 자신의 경험을 담아 만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랫말로 인해 케이티 페리의 노래는 대중들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 때문인지 케이티 페리의 음악 세계에는 특별한 출입 제한이 없고, 그녀의 부담 없는 팝 음악은 최신 트렌드를 투영하면서도 전 대중을 아우른다. 즉, '매우 대중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다. 비윤세와 같은 압도적인 가창력도 없고 레이디 가가나 마돈나처럼 엄청난 파격성도 없었고, 마일리 사이러스처럼 희대의 노이즈 마케팅을 펼친 것도 아니었지만 케이티 페리는 각기의 마니아층 모두를 포용하는 대중성으로 팝스타로서 성장했다.